

##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출제문제 해설 포함) ◆

### [경상\_문제 1]

#### 1. 출제의도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적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자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크게 보면 '근대성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질문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약간 다르다. 기존의 그것이 진보와 발전 신화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던 데 반해, 이 문제는 진보와 발전 기획이 배제하고 축출한 것들의 의미를 되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 기획에 깔려 있는 '시간적 단절'의 계기가 현실의 삶에서 단순하게 작동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통해 근대 기획의 한계와 삶의 지속성(혹은 복잡성)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 2. 제시문의 요지

- 제시문 (가) : 도시공간의 예를 통해 진보와 발전 관념에 입각한 근대 기획이 기능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전면화하고 있음을 논함.
- 제시문 (나) : '근면', '부지런함' 등의 맞은편에 있는 '심심함', '권태', '느림' 등이 진정한 창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논함.
- 제시문 (다) : 구획된 '곧은길'과 일상 속의 '골목'을 대비함으로써 직선에 의해 축출된 생활세계의 두께와 볼륨을 복원.
- 제시문 (라) :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개념을 통해 기능적 합리성과 효율성이 역사적 과정의 단일한 결정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여기에 비합리성, 우연성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

#### 3. 제시문의 배치

- 제시문 (가)를 제시문 (나), (다), (라)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배치.
- 즉, 근대 기획의 일반 문법을 상반되는 가치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
- 여기서 제시문 (나), (다)는 효율성과 기능성에 대한 반면적 가치를, 제시문 (라)는 시간적 단절에 대한 지속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경상\_문제 2]

#### 1.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거래비용이 국가가 간 가격차이와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는 일물일가법칙의 정의와 성립 문제를, 제시문 (나)는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제시문 (다)는 국가 간 가격차이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표준편차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러한 개념을 제시문 (라)의 수치와 결합하여 거래비용이 국가 간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 평가기준:

[경상\_문제1]

평가등급구간	평가 핵심 내용
1~2	* 제시문들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실한 논술이 이루어진 경우. - (나), (다), (라)의 핵심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가)의 논의에 적용한 경우. - 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포함한 경우. - 특히, (라)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함.
3~4	* 제시문들의 핵심은 모두 파악했으나, 논술이 적실하지 않는 경우. - (나), (다), (라)의 핵심을 (가)의 논의에 비유기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 - 자신의 견해가 미흡한 경우. - (라)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
4~6	* 제시문들의 핵심 가운데 일부만을 파악하여 (가)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경우. - 자신의 견해가 미흡한 경우. - (라)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
6~7	* 문제의 의도와 제시문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
8~9	* 문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 이해력(40%)
- ▶ 통합적 사고력(40%)
- ▶ 독창성(10%)
- ▶ 구성 및 표현력(10%)

[경상\_문제2]

<문항 1 답안>

첫째, 제시문 (다)의 공식을 적용하면 각 항목의 국가 간 표준편차 값은 다음과 같다:

$$\text{㉠}=4, \text{㉡}=2, \text{㉢}=3, \text{㉣}=4, \text{㉤}=13$$

둘째, 소비자가격의 표준편차 값(㉤)이 13으로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와인의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항목별 표준편차 값을 비교함으로써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생산비 및 생산마진(㉠=4)과 국내유통마진(㉣=4)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며, 다음은 수입관세(㉢=3), 국제운송료(㉡=2)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생산비 및 생산마진과 국내유통마진이 와인의 일물일가법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은 수입관세, 국제운송료의 순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문항 2 답안>

첫째, A국과 B국의 FTA로 인해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B국의 수입관세는 0이 된다. 따라서 B국에서 와인 소비자가격은 개당 54달러에서 48달러(=54-6)로 하락한다.

둘째, 하지만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B국의 와인 소비자가격은 여전히 C국보다 7달러(=48-41) 높게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A국 생산 와인의 생산비 및 판매마진 (엄밀히는 판매마진)과 국내유통비가 B국이 C국보다 월등히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 3 답안>

<문항 3-1 답안>

제시문 (나)에 따르면  $\alpha = \frac{\text{국제거래비용}}{\text{생산자가격}}$  으로 정의된다.

<표 2>에 수치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alpha = \frac{\text{국제거래비용}}{\text{생산자가격}} = \frac{\text{국제운송료} + \text{수입관세}}{\text{생산비 및 판매마진} + \text{국제운송료} + \text{수입관세}} = \frac{4 + 0}{22 + 4 + 0} = \frac{4}{26} (\approx 0.1538)$$

<문항 3-2 답안>

제시문 (나)에 따르면 B국이 A국으로 수출할 때 무역이득은  $(1 - \alpha^A)P^A - (E \times P^B)$ 이다.

위 공식에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와 <표 2>에서 주어진 아래의 가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 $P^A$ 와  $P^B$ 는 생산자가격이다.
- 모든 가격은 동일통화인 달러로 표시되었다.
- 생산과 유통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무역의 이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1 - \alpha^A)P^A - (E \times P^B) &= (1 - \frac{4}{26}) \times 26 - 21 \\ &= \frac{22}{26} \times 26 - 21 \\ &= 22 - 21 \\ &= 1 \end{aligned}$$

만약 분수 대신 소수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 - \alpha^A)P^A - (E \times P^B) &\approx (1 - 0.1538) \times 26 - 21 \\ &= 0.8462 \times 26 - 21 \\ &= 22.0012 - 21 \\ &= 1.0012 \end{aligned}$$

이 경우 무역의 이득이 0보다 크므로 B국은 A국에 수출할 것이다.

평가등급구간	평가 핵심 내용
1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1. <문항 1>에서 ㉠, ㉡, ㉢, ㉣, ㉤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 2. <문항 2>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 3. <문항 3>에서 <문항 3-1>의 $\alpha$ 값과 <문항 3-2>의 무역이득 값을 정확히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B국이 A국으로 수출한다고 설명한 경우
2	1. <문항 1>에서 ㉠, ㉡, ㉢, ㉣, ㉤ 중 2개 이하 계산이 틀리고 계산 결과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 2. <문항 2>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 3. <문항 3>에서 <문항 3-1>의 $\alpha$ 값과 <문항 3-2>의 무역이득 값을 정확히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B국이 A국으로 수출한다고 설명한 경우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 중 3개 이상 계산이 틀리고 계산 결과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값을 정확히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B국이 A국으로 수출한다고 설명한 경우</li> </ol>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 계산이 틀린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값을 정확히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B국이 A국으로 수출한다고 설명한 경우</li> </ol>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중 한 개만 정확히 계산한 경우</li> </ol>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 중 2개 이하 계산이 틀린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 계산이 틀린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계산 중 한 개만 정확히 계산한 경우</li> </ol>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 중 3개 이상 계산이 틀린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 계산이 틀린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계산 중 한 개만 정확히 계산한 경우</li> </ol>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 중 두 개 이하 계산이 틀린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계산이 모두 틀린 경우</li> </ol>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문항 1&gt;에서 ㉠, ㉡, ㉢, ㉣, ㉤ 중 세 개 이상 계산이 틀린 경우</li> <li>2. &lt;문항 2&gt;에서 관세철폐 이후 소비자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li> <li>3. &lt;문항 3&gt;에서 &lt;문항 3-1&gt;의 <math>\alpha</math> 값과 &lt;문항 3-2&gt;의 무역이득 계산이 모두 틀린 경우</li> </ol>

### 3. 평가 항목

- ▶ 이해력(30%): 제시문의 요지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계산능력
- ▶ 통합적 사고와 적용력(2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 ▶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